

조선대, 광주U대회 공식파트너대학 선정 인증패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최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파트너대학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김성중(사진 왼쪽) 조선대 학생처장은 최근 송영한 2015광주하계U대회 홍보마케팅본부장으로부터 공식파트너대학 인증패를 받았다. (조선대 제공)

김혁중 광주대 총장, 베트남 사이공엑트대학 방문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자매대학인 베트남 사이공엑트 대학 초청으로 최근 사이공엑트대학 신캠퍼스 준공식에 참석, 축사 후 신입생 대표에게 선물을 주며 격려했다. 이어 김 총장은 호치민시 외국어정보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15일 귀국했다.

최승곤 남양통신 대표, 모교 동성중·고에 장학금



광주 동성중·고를 졸업한 최승곤(주)남양통신 대표(중 14회, 고 16회)가 최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과 야구부 후원금 등 12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전주인 유은학원 총동문화장, 김동석 사무총장, 강익선 광주동성고등학교장, 이현중 광주동성중학교장, 조두현 행정실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베스트셀러 작가 이수경씨 광주 특강

오늘 오후 3시 시교양연수원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를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 이수경(사진) 씨가 16일 오후 3시 광주시교양연수원 대강당에서 특별강연을 한다. 광주시교양연수원(원장 윤혜숙)이 마련한 이번 특강은 환상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왜 불편해지는지를 들여본다.

또 일상생활·대화·가사·경제·자녀교육 등 결혼생활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문의 062-600-777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애육원서 재능 기부 호남예술제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따뜻한 음악 연주하는 아이들 감동이었어요”

동서식품, ‘맥심 사랑의 향기’ 악기 전달식 등 행사

조금은 서툰 동작으로 아이들은 ‘아침이슬’을 연주했다. 이어진 곡은 플루트 독주곡 ‘시월의 어느 멋진 날’. 객석에 앉은 바이올리니스트는 음악을 들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애육원생들로 구성된 희망올림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무대에서 언제나 담당하던 그녀를 울리고 말았다. 아이들의 작은 연주회가 끝난 후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부터 늘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연주를 들으며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연주하면서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26)씨에게 이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15일 동서식품이 광주 애육원에서 진행한 제6회 ‘맥심 사랑의 향기’는 감동으로 가득했다. 동서식품은 이날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 등 6대의 악기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단복을 기증했다. 신씨는 단원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레슨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작은 감사의 악회로 마음을 전했다. 전주 출신으로 호남예술제가 첫 번째 경연

참가했던 신씨는 통티보 콩쿠르 우승, 쾨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입상 등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다니엘 하딩 등 유명 지휘자와 협력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다. 신씨는 이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10여명의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레슨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게 처음이라 초반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자세를 교정해주며 레슨을 이어갔다. “연습할 때는 항상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서 해야 좋은 소리가 나와요. 저는 10시간 넘게 연습할 때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려고 해요. 자, 제가 한명씩 연주하는 모습을 볼게요.” 신씨는 단원 한명 한명의 소리를 듣고, 자세를 살펴보고 고칠 점을 알려주고 조언을 했다. 아이들 역시 진지한 모습으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한명씩 레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점을 알려줄 수 있어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막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은 할 잡는 법 등 기본을 정확히 배우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저 역시 어릴 때 그렇게 연습을 했구요.”



신지아씨가 15일 ‘맥심 사랑의 향기’ 행사에서 애육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제공)

신씨는 “무엇보다 따뜻한 음악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가르치며 울컥했다”며 “기회가 되면 꼭 아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레슨을 받은 박세빈(동림초 6)양은 “할 잡는 법, 활 쓰는 법 등을 배웠는데 앞으로 꼭 기억해서 연습할 것”이라며 “어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

는데 오늘 직접 바이올린을 가르쳐줄 때는 친근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능기부에는 14일 광주문화관에서 열린 ‘동서커피 클래식’ 공연에서 신지아, 이루마씨와 협연무대를 가졌던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설승이(플루트), 김가영(첼로), 구은혜(비올라)씨도 함께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취임 6개월 순천의료원 이창용 원장

“시민의 공공보건 책임지는 병원으로”

“지역 유일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료과 증축, 의사 보충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원 모두 지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순천의료원 13대 원장에 취임한 이창용(59) 원장은 취임 이후 체외 충격과 쇄석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의 노후 장비를 최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한방과를 개설하는 등 순천의료원을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경영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이라는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취임 후 6개월 간의 소감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운영에서의 미흡한 점이 지적된 점진센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공익적 보건·의료사업 등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짧은 시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남겼다. 최근 노인 안질환이 급증하자 그는 내년



안과를 개설해 직접 진료에도 나설 생각이다. “민간 의료기관과는 달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한 이 원장은 “불법체류의국민, 다문화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학대 아동·노인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 안전망 역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전문의료진을 추가로 확보하고 치매·정신지체 장애인의 재활 및 완화 치료 등을 특성화해 수익도 증대시켜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하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19년 도립병원으로 개원한 순천의료원은 현재 13개 진료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나주시 윤여정 과장 향토문화공모 최우수상

지명 활용 또 다른 ‘호남가’ 발굴·연구 성과 돋보여

종전의 관소리 단가 ‘호남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호남가’를 연구한 논문으로 나주시 윤여정 교육지원과장(58·사진 오른쪽)이 한국문화재단(회장 김기현) 주최로 제2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윤 과장은 ‘호남가 제형태와 변화 연구’ 논문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호남가’를 발굴·비교해 또 가사 형태의 ‘호남가’가 단가 형식으로 변화된 과정을 추적해 ‘호남가’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논문에 따르면 문헌상 최초의 ‘호남가’는 18세기 초반에 편찬된 ‘해동유요’에 나타나지만 지금의 ‘호남가’와는 다른 형태였다. 또 1816~1819년 사이에 필사된 ‘고가요기 초’라는 책에서 ‘해동유요’의 ‘호남가’와도 다르며, 지금과는 다른 호남가가 실려 있음을 찾아내 소개했다. 호남가는 연회를 하기 전에 목을 푸는 형식의 ‘영산(靈山)’ 또는 ‘허두가(虛頭歌)’ 등으로 불리어 오다가 1880년대에 동리 신재효(申在孝)에 의해 지금 형태의 호남가로 정리된 후 관소리 단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한다. 윤 과장은 활발한 향토사 연구를 통해 지난



1998년 ‘한자에 빼앗긴 토박이 땅아름’과 2009년 ‘대한민국 행정지명(광주·전남편)’을 펴내 이 지명연구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 과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남가의 원류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지명을 활용한 또 다른 형태의 호남가를 찾아내어 서로 비교해 보고 어떻게 관소리 단가로 변화되었는가를 조금이나마 추적할 수 있어 기뻐다”고 말했다. /나주=송영철기자 ycson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4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이경원·권정희씨 장남 현우(두산중공업)군 성석현(전 수자원공사)·장충업(신가초등학교 교사)씨 장녀 수진(초등학교 교사)양=19일(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웨딩홀 1층 세종홀. ▲김기식(보성군청 주민복지실장)·안금숙씨 아들 우재(한국 기상산업진흥원)군 최순복(전 인천남동시범공단 부부장)·송희순씨 딸 현정양=20일(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동창동문회

▲2013광주공교(동맥인) 한마음 큰잔치=20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모교 운동장. 주최 광주공교 총동창회(회장 홍석태) 062-511-1946. ▲송원고 총동문 한마음대축제=20일(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송원대학교 운동장 062-384-7447.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2일(화)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남초등학교 및 무등중학교 학부모 대상 꿈을 키워주는 부모 되기 교육 안내=16일(수) 오전 10시~12시 광주남초등학교 교육복지실. 주제는 ‘반항할까요? 사춘기일까요?’ 반항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강사:이요한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062-233-0468.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5대 중독(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 니코틴)에 대한 상담을 제공. 21일(월) 오

후 6시 30분 062-412-1461, 062-413-1195.

▲제1회 전국 동요경연대회 개최(주최 (사)한국음악협회 합평군지부)=11월 9일(토) 오후 2시 합평군민회관 2층, 경연부문 및 경연곡은 독창, 중창 중(지정곡 1곡, 자유곡 1곡), 자격은 전국 초·중·고·일반 동요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 참가신청은 11월 4일(월), 시상식 각 부문별 최우수 1팀·우수상 2팀 문의 010-2047-9237(윤선명 사무국장).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모집

▲무등산에너지·사·군·구 무자본 대리점주 및 남·여 사원 모집 062-251-0611, 010-5126-5324. ▲‘경제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참가자=만 22세~45세 구직자 대상, 참가비 무료, 수료증 ‘경제교육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료 후 학교, 단체 강사활동 가능, 모집기간 25일(금)까지. (사)인재육성아카데미 062-224-7733, http://www.mdsarang.com ▲무등예술중합평생교육원=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탭댄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반 수시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 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2013 여성가족부 공동협력 사업 ‘법집공예’=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10~15명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은 5월~11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주1회·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206호.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2013 여성단체·기관 협력사업 ‘양말인형공예’=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10~15명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은 5월~9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주1회·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206호.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부음

▲노점순씨 별세 김재복·영례씨 모친상=발인 17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정남씨 별세 강주성·미선·미

영씨 모친상=발인 17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임석순씨 별세 지환·지선씨 부친상=발인 1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이예식씨 별세 유미·유리씨 부

친상=발인 16일(수)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이정록씨 별세 재기(법무사유정현사무소)·재성(남동민철강)씨 부친상=발인 1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a deceased person, including details about the servic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